紙上인터뷰

# 에너지消費節約과 에너지 自主供給能力 增大

**動資部 資源開發局**

**李 元 局長과 인터뷰**

中東事態의 惡化로 페르시아灣의 危機가 高潮되어 가고 있어 에너지波動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世界各國에서는 앞을 다투어 代替에너지 開發과 에너지 절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우리政府에서도 앞으로 다가 올 油類波動에 對備한 施策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이에 따른 資源開發 및 에너지節約 政策을 立案計劃하는 데 있어 그 主導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動力資源部 資源開發局 李元 局長을 만나 最近의 우리나라 에너지 開發 및 節約政策의 方向과 대응방안에 대한 그 實態를 들어 보았다.

(問) 최근 페灣 사태로 政府·國民 모두 에너지 節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 國內에너지 消費實態는 어떠합니까. 페灣사태이후에는 좀 자제하는 기미가 보이는지요.

(答) 우리나라의 '80年代 에너지 消費增加率은 經濟成長率보다 낮았던 것이 '89년부터 에너지 消費增加率(8.4%)이 經濟成長率(6.7%)을 상회하여 오고 있으며 이같은 추세는 금년들어 더욱 확대되어 '90年 上半期중 에너지消費는 14.3% 增加하여 경제성장 9.9%를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에너지 消費增加는 최근 몇년동안의 지속적인 에너지價格의 하락과 함께 석유화학, 비금속등 에너지를 많이 쓰는 産業體의 생산활동 증가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자연적인 增加要因도 있으나, 문제는 생산부문이 아닌 가정·상업부문 등의 消費性 부문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져 過消費 문제가 에너지消費 부문에서도 高級에너지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에너지消費가 이렇게 높게 증가하고 있던 터에 予期치 않는 페灣사태가 발생하여 高油價시대가 앞당겨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政府에서는 강력한 에너지消費節約對策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9月중의 전체적인 에너지消費는 前年同月

대비 24.5%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국내에너지수급 및 가격불안을 우려하는 수요처의 조기물량확보에 기인한것으로, 휘발유소비의 경우 前年同月의 44.1%보다 훨씬 낮은 28.8%의 증가세로 나타난 것은 消費節約運動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에너지消費節約運動에 國民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에너지 소비증가세는 점점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問) 페湾사태이후 政府는 에너지節約 綜合對策을 수립 시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11월초에는 제2단계 에너지節約 綜合對策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의 주요내용은 무엇인지요.**

(答) 먼저, 페르시아湾사태 발발 직후인 '90年 8月 17日 단기적으로 즉각 시행이 가능하고 절약효과가 큰 시책을 우선 추진하고, 中期的으로 각종 제도의 정비등을 통해 절약을 도모하며, 長期的으로는 절약기술개발 및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개편유도등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에너지消費節約綜合對策』을 수립·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중 短期的 시행으로서 우선 공공부문에 대하여는 에너지節約을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각 기관별로 자체 에너지 10%절감을 추진토록하고, 수송부문에 대하여는 주유소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제한 시행하고 있으며, 가정·상업부문의 節約施策으로서는 사무실의 백열등 사용금지, 네온사인 사용시간 제한등 전기절약을 도모하고 또한 위락시설등 에너지다소비건물등의 신축제한을 건설부와 협의, 당초 9月말에서 금년말까지 그 制限期間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政府에서는 國民들의 에너지절약의식을 더욱 고취하기 위하여 『제 2단계 에너지消費節約對策』을 발표하였습니다만 이는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는대로 곧 시행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 및 상용건물의 실내온도기준을 겨울철은 현행 22℃ 유지에서 18℃－20℃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여름철에는 26℃에서 26℃－28℃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절약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복도의 1/2 소등을 권장하고 옥외 전광판 및 네온사인의 신규설치금지, 차량의 경제속도 준수, 사우나등 에너지－물 다소비업종의 정기휴일제도 관계부처와 협의후 추진키로 하였으며, 보일러, 자동차, 가전제품등 에너지사용 기기의 광고시 동 기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절약기법도 병행 홍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問) 페湾사태로 에너지자주공급능력 확충문제가 다시 강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代替에너지 및 海外資源開發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答) 먼저 代替에너지 개발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내 賦存 代替에너지資源을 최대한 개발·활용키 위하여 '87年 12月 代替에너지 開發促進法을 제정하였고, '88年 6月 代替에너지開發 基本計劃을 수립하는 등 수년전부터 기술개발 노력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88年부터 현재까지 政府의 예산을 비롯하여, 석유사업기금, 한전연구개발충당금 등으로 총 125億원을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연구에 지원하였고, 今年부터는 기업참여 확대로 연구사업 활성화와 보급촉진을 도모키 위하여 기업주도 研究事業을 새로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과제는 太陽光, 燃料電池 분야의 범국가적인 연구사업을 비롯하여 太陽熱, 바이오매스, 폐기물 이용기술개발 등이며, 代替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 특성상 연구기간이 3~4年이 소요되는 장기 연구과제들로서 매년 연구결과를 축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과 함께 代替에너지 이용보급에 있어서는 실용화가 가능한 대체에너지보급 활성화를 위해 '83年부터 '89年까지 총 812億원을 지원한 바 있고, '90年에는 175億원을 이미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나 전체 에너지의 0.3%를 太陽熱, 폐기물, 소수력등 代替에너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